

다산포럼

송재소



브라질의 톨라 대통령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브라질 국민들은 퇴임하는 그에게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를 2014년에 다시 출마하면 당선 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신은 한 사람에게 두 번 선물을 주지 않는다.

이 아름다운 퇴장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퇴장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가지지 못했을까? 퇴임할 때 아쉬워하고 퇴임 후에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

다. 이렇게 볼 때 톨라 대통령은 행복한 대통령임에 틀림없고 그런 대통령을 가진 브라질 국민들 역시 행복한 국민임에 틀림없다.

나는 한문학이던 전공의 특성상 중국어를 배우는 편인데, 중국 여행에서 느낀 강한 인상 중의 하나가 모택동(毛澤東)의 품목이었다.

사회주의자로서의 모택동이 남긴 업적 중에는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가 중국 근대화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호남성에 있는 그의 생가(生家)에는 연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적어도 한 시

간 이상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생가를 구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택시 운전석 앞에 그의 사진을 매달고 다니는 기사들이 많다.

중국 국민들은 왜 이토록 그를 못 잊어 하고 존경할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퇴임 후 존경받는 지도자

돌이켜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오늘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중국인이 모택동을 존경하는 만큼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다.

안휘성 마안산(馬鞍山)시의 '이백 기념관'에는 모택동이 쓴 이백의 '장진주(蔣進

酒)가 석각 되어 있고, 강서성 구강(九江)시의 '비파정(琵琶亭)'에는 616자에 달하는 백거이(白居易)의 장편시 '비파행'이 역시 모택동의 필적으로 석각 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모택동의 필적이 남아있다. 또 자신이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자국의 문화 유적지를 찾아 느낀 감회를 직접 한시로 써서 남기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혁명가가 아닌 따뜻한 시인의 체취가 서려있다.

이렇게 자국의 고전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으며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인문정신이 그를 더욱 큰 인물로 만들었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브라질의 톨라나 중국의 모택동처럼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성균관대 명예교수·전문문화연구회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정치권, 변화 바라는 민심 직시해야

지역 정치권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 민심은 싸늘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민이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대표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케이엘조사연구소(주)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1%를 차지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불만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광주시민의 57.1%가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비록 지지하지 않겠다는 지역민이 27.0%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나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35.1%에 불과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전남지역은 중선거구제가 45.1%로 소선거구제 32.4%를 훨씬 앞질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55.5%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중선거구제는 17.9%에 지나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역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광주·전남이 더 이상 특정정당의 '뒷밭'이 아닌 울타리의 불만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광주·전남이 더 이상 특정정당의 '뒷밭'이 아닌 울타리의 불만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하다.

고교 '선수학습' 금지, 과연 대책은 있는가

광주교육청이 최근 일선 고교에 입학 전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선수학습(先修學習)의 전면 금지를 지시하자 일부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빚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선입생 예비학교 금지에 따라 학생들이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 뻔하다"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해 모두가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시 교육청은 이러한 항의에 대해 어떤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먼저 입학 전 학습 프로그램 시행 시점에서 학교나 학부모 측에 최소한의 사전 고지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지된다는 방침이냐는 질문을 했다.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기회 박탈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시 교육청이 금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과도한 고교 교육활동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납득되지 않는다.

NGO 칼럼

김영삼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지난해의 사상적으 추천한 교수신문은 "지나해는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 FTA협상, 새해 예산안 졸속 통과 등 수많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진실을 덮고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두노미(藏頭露尾)처럼 지난해 대한민국은 갈등과 정세변화는 심화되고 진실은 감춰진 채 표류했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긴장국면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최대의 위협을 받았다.

공물급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등 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가고 있다. SSM으로 촉발된 대기업의 끊임없는 탐욕은 이제 골목길 상권을 넘어 개인의 공간침탈까지 뻗어갈 기세다.

사통팔달 되는 광주시 기대해 본다

없는 MB정부가 변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데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지난해 우리 지역은 어땠을까?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많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광주만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광주의 10년, 100년의 모습을 지역 사회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합의의 정신, 도전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보이지 않은 채 실적 중심으로 흘러갔다.

도시철도 2호선과 대중교통망 확충, 송정리역과 광주역과의 관계설정, 광주공항공과 무한공항의 문제 등 현안별 사안에 대한 대처만 있을 뿐 광주 도시발전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지역적 합의와 논의는 실종됐다.

한구조에 안몰린 그림자를 드리웠다.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키며 미래 성장동력인 경제주체를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역의 권력구조를 독점해 왔던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야 4당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상승과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이 밝았다. 암울한 현실일수록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5월 광주정신을 통해 2011년은 MB의 장두노미(藏頭露尾)보다는 상하좌우 모두와 소통하고, 소통된 결과는 전체와 공유하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시작을 광주가 알리기를 소망해 본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기고

유순남



최근 남편 사는 친구를 서울에서 만났다. 친구의 모습은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절했다.

손등의 피부는 얼룩덜룩 한데다 수분이 말라 가죽 같았다. 대장암 3기라 수술을 했는데 수술부위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 재수술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녀들은 하얀 셔티로 뒤 덮힌 옷더미에서 중고 매매시장에 내놓을만한 것들을 골랐다.

친구는 명품만 골랐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명품일수록 상태가 좋았다. 심지어는 상표도 떼지 않은 것도 있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심신의 아픔에 울분까지 품고 있는 친구를 두고 병실 문을 나오는 일이란 차마 못할 것이었다.

서울에 올라간 김에 3년 전에 암수술을 한 친구네 집에 들렀다. 그 친구는 유방암 3기여야 발견되었다.

친구는 직접 보여주겠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나를 데리고 이웃집 여자의 탑 차에 올랐다.

친구는 직접 보여주겠다며 다음날 아침 일찍 나를 데리고 이웃집 여자의 탑 차에 올랐다. 탑 차는 우리를 서하남의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입은 두 번째란다. 모은 돈은 어디에 쓰냐고 물었더니, 매일 복지시설에 방문할 물품을 사고 남은 돈은 자기 아이들이 남에게 밥을 사서라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아니다. 가진 자들은 그저 삶이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렸을 뿐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가진 자들이 '품위 있는 의무'를 기꺼이 하며, 또 의서들은 의료사고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픈 친구는 하루속히 하얀 눈송이가 같은 피부가 돌아오고, 돈버는 친구는 돈버는 대신 하얀 눈길을 걸으면서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영광여자중학교 수준별 수업 강사〉

환경오염 심각 폐휴대폰 수거 적극 나서야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실재없이 쏟아지는 신제품들로 인해 휴대폰의 교체주기가 급속도로 짧아졌다.

이와 함께 1년에 1000만대 이상의 폐휴대폰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심코 버리는 폐휴대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너무 무관심하다.

휴대폰에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매립되거나 소각될 때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동사의 보조금 정책이 합법화되면서 2~3만 원씩 지급되던 폐휴대폰 보상금이 사라진 이후 폐휴대폰 수거가 급감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년에 1000만 대씩이나 버려지는 폐휴대폰이 그대로 흙속에 묻힌다면 어떤 재앙이 되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강성규·광주시 동구운림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인기만을 좇는 '변절자'인가. 철저한 '실용주의자'인가? 지난해 31일(현지 시간) 8년 임기를 마친 루이스 이나시오 톨라 다 실바(이하 톨라) 브라질 전 대통령에 붙는 수식이다.

톨라는 집권 후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변절했다는 비판을 감수했다. 국가경영은 더 이상 '운동노리'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우파와의 연립내각 구성을 통해 과감한 중도실용 노선을 채택했다. 국가 부도위기로 치달던 브라질 경제는 톨라 집권기인 2003~2010년 연평균 4%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빛바림이 사라졌다.

톨라



한편으로는 빈곤과 가이 퇴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친서민 정책은 항상 국가계획의 근간을 벗어나지 않았다. 지지층 이탈 기미가 보이거나 우파의 견제가 들어오면 대화로 소통했다.

톨라는 이제 한 시민주로 돌아갔다. 톨라의 성공으로 브라질은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로 각인됐다. 퇴임 대통령마다 불행 겪고, 후임과 대립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제 브라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자 unpark@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2200-62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2200-621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2200-661 <대표 FAX 222-4918> 여권매부 2200-621, 2200-621 <대표 FAX 222-4918> 체육팀 2200-693, 2200-693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7, 2200-697 사회부 2200-616, 2200-571 <대표 FAX 222-4267> 조사팀 2200-571,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2200-541 <대표 FAX 222-8005> <대표 FA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7-9500> <대표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립국 2200-555 <대표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